

한여름의 더위도 식혀주며

요즘 평양시내의 곳곳마다 《얼음꽃》 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의 마음을 흥그르게 해주고있다.

보기만 해도 상쾌하고 청신한 《얼음꽃》 풍경-빙수 매대이다.

빙수는 얼음을 잘게 잘아 눈과 같이 만든 다음 사탕, 과일즙 등을 섞어 만든 청량 음료의 한가지이다.

빙수의 종류도 도마도빙수, 팥빙수, 딸기빙수, 들쭉빙수, 아이스크림빙수 등

요구르트빙수 등 여러가지여서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빙수를 요구한다.

도마도빙수는 도마도, 사이다, 소금 등을 주원료로 하여 빙수의 시원한 맛을 살

리고 팥빙수는 팥줄임, 참쌀, 속가루 등을 가지고 만든것이다.

빙수의 영양가 또한 높아 어른, 아이 할것없이 누구나 좋아한다.

갓가지 과일들과 찹쌀가루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재료들을 첨가하여 만든 특색있는 빙수는 눈맛도 돌고 풍부한 영양성분으로 하여 건강에 아주 좋다.

한낮의 더위를 가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빙수매대들을 찾곤 한다.

흰눈처럼 정갈한 그릇에 들쭉 담긴 갓가지 색깔의 빙수들을 시원하게 들면서 사람들은 더위가 순간에 날아나는것 같다고 말한다.

《봉사원동무, 요전번에 보니 팥빙수가 맛이 좋더군요. 한그릇 주십시오.》

《우린 도마도빙수를 주세요》



자질문자란 말소리를 적는 바탕글자이다.

세계 여러 민족들의 말을 하나의 문자로 쓰려면 그 문자가 모든 민족어의 말소리를 표기할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표기하기 쉽고 이해를 빨리 할수 있어야 한다.

1444년 1월에 창제된 훈민정음에 대해 세계언어학계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조선말의 특징은 첫째로,

쓰기도 편리한 점 등의 우수성이 있다.

영국의 음성언어학자 제프 리 샴슨교수는 조선어가 발음기관을 상형화하여 글자를 만들었다는것도 독특하지만 기본글자에 획을 내는 방법이 대단히 체계적이고 훌륭하다고 하였다.

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 모든 문자들의 순위를 정하였는데 조선어문자가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에서는 훈민정음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유네스코에서는 말은 있지만 글이 없게 고생하는 소수 민족들에게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말을 조선글자로

표기하도록 가르치고있다.

조선어는 과학적인 언어여서 쓰기가 편리하기때문에 지구상 거의 모든 민족어들을 표기할수 있는 글이다.

20세기말 프랑스에서 진행된 세계언어학자들의 학술대회에서는 에스페란토어가 너무 협소하기때문에 조선어를 세계공용어로 쓰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기되었다.

주영진

세계문자들의 순위 첫자리

조선어문자

그는 또한 조선글이 소리 글자이지만 새로운 높은 단계의 자질문자로 된다고 평가하였다. 그의 이러한 평가는 조선글이 세계적으로 유일한 자질문자로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언어학계에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영국 옥스퍼드종합대학 언어학대학에서는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

수영은 인류사회의 발생과 함께 로동생활 과정에서 생겨난 가장 오랜 체육종목이다.

원시인들은 물에서 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생활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였으며 바다와 호수, 강에서 자맥질로 물고기와 조개 같은것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과정에 헤엄치는 법을 배웠다.

고대에 이르러 수영은 군사

수영경기의 유래

적측면에서 많이 이용되었다. 본격적인 수영경기대회의 틀거리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수영에 호가들이 모여 영국수영협회를 무었다.

협회에서는 수영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선수들에게 상금과 메달을 수여하

였으며 이 대회는 30년 이상 계속 열렸다.

현대수영은 각 민족협회들의 창설과 현대올림픽경기가 진행되면서 발달발전하였다.

국제 아마추어 수영연맹(FINA)은 1908년 7월 19일 영국에서 34개의 나라가 모여 창립되었다.

공화국은 1964년 4월에 국제 아마추어수영연맹에 가입하였다.

본사기자

사화

노루친 몽둥이 3년 우리다 (2)

글 리유근, 그림 채대성

언젠가 타성을 가진 한 량반이 그의 선산에 있는 묘자리가 텅 비어 물레 찧다가 그에게 발각되어 된경을 치르고 그날로 도로 파갔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웃지 못할 화제거리로 남아있다.

학당골의 송씨문중들은 이를 더없는 긍지로, 자랑거리로 여기고있는데다. 그들은 자기네 밀양송씨가문이 이처럼 대대로 번성하고 화복하게 사는것도 다 송생원이 좌상으로 앉아 그릇듯 문벌을 중시하고 조상을 잘 받들어온 덕이라고 믿고있었다.

송생원이 선영을 잘 돌보고 분묘제향(제사)을 극진히 하는데는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는 장발한 아들 하나를 장차 가문의 혈통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잘 키울 결심이였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법도를 배워주고 그 법을 엄격히 지킬것을 요구했다. 그가 부모 3년상을 다 초막에서 치르고 몸이 추가 거의 죽게 되

어 내려오는데는 아들이 그 행적을 본받게 하자는 의도도 깔려있었다. 그레 아들처럼도 제사를 잘 받들라는 뜻에서 《받들 붓》자와 《제사사》자를 써서 《봉사》라고 지었다. 허나 아들은 부친의 그 지성을 본받으려 하지 않았다. 외척이 선다고 철들기 전부터 놀음놀이에만 정신을 팔더니 장가를 보내어 첩이 들어서는 난봉꾼이 되고 말았다. 무과시험을 친다고 해서 울라가서 한량건달들과 설썰러다니며 기생방춤에 조영이 갔다는 소문까지 들려왔다.

벌써 적지 않은 가산을 탕진했으니 그냥 놔뒀다가는 얼마간 남아있는 전장마저도 팔려나갈까봐 걱정되었다.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다. 다른 자식에게 종아리를 칠수도 없고 이해체재 속을 썩이던 송생원은 마침내 그것이 화병으로 되어 시름시름 앓다가 이에 자리에 눕고말았다.

이제 제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것을 스스로 판단한

그는 여러 친척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유언을 남겼다. 아들이 더는 가문을 망치지 않게 잘 살아라라는것과 조상제사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제대에 신칙하라는 당부였다.

그레 정도령도 마침 송생원네 집에 들렀다가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송생원은 운명하는 순간에 그의 손을 꼭 부여잡고 전에 자기가 한 부탁을 부디 잊지 말라고 재삼 당부했다. 그레 오늘 정도령은 송생원의 유언대로 묘자리를 향한 곳에 잡아주었다. 앞은 남향이 탁 이고 뒤로 밋밋한 구릉이 반달형으로 빙 둘러막힌 대지로서 《선인학지형》 즉 신선이 학을 타고 날아오르는 형국이었다. 이런 곳에다 묘를 쓰면 자손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그의 말에 온 송씨문중은 너무나 좋아하였다.

송생원의 아들 봉사는 온 세울장안을 돌아치며 난봉을 피우다가 부친 상사기별을 받고 그만 속이 뜨끔하여 부

라부라 내려왔다. 아닐세라 온 일가문중이 달려들어 가문에 먹칠을 하는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밀구멍이 빠져 고 육설을 퍼부었다. 그레도 봉사는 제가 한정이 있는지라 나 죽었소 하고 삐죽소리 한마디 못했다. 그들앞에서 재발 잘못을 깨우려하며 이제부터라도 계향봉사를 잘하겠노라고 빌어서야 겨우 봉분을 면했다. 아까 벼구멍만 산제사옷을 입고 상여뒤를 따라가다가 상여꾼들이 애먹이는것을 보고 서슴없이 돈 껌미를 안겨준것도 바로 이런 연고가 있기때문이었다.

상여꾼들이 애먹이는것은 상제들의 돈을 우려내어 나중 술상을 차리는데 쓸 비용을 내는것으로서 고래로부러 내려고하는 풍속이기도 했으나 봉사의 호의가 아니었던들 그처럼 많은 돈이 차례 지지 않았을것이다.

정도령은 봉사가 효도는 잘 못해도 《통이 큰》 사내임을 곧 알아차리고 어떻게 그를 구슬릴가 속으로 짐을 쳐보았다. 송생원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당한 재산을 남기고 죽었으니 이제 그 모든게 봉사의 차지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또 봉사가 그것들을 고스란히 지켜내어 후손들에게 돌려줄리도 만무하였다. 정도령은 홀러가는 그 재산의

한푼이 눈앞에 보이는것 같아 군침을 삼켰으나 아직은 그림의 떡이었다.

이날 그는 행장을 다 치르고 초벌로 적지 않은 물건과 사례금을 받았다. 봉사만이 아니라 온 송씨대 문중들이 묘자리를 잘 보아주어 감사하다고 저마다 돈을 기부하는 바람에 정도령의 주머니

가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무너아롱진 통영갯 찢던 머리에 패랭이 쓰고 매끈한 미투리 신던 발에 짚신 신고 사철 삼베옷에 삼시 미음과 우자나 그야말로 하루가 천년맛잡이었다. 부친의 전례로 보아 려모살이 고동이나 큰것은 짐작했지만 이처럼 참기 어려울줄은 정

런 레절이 무엇에 필요한가? 그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 소위 선형이라 자처하며 이따위 작별을 고안해낸 자들을 저주했다. 하긴 그럴 만도 하였다. 효자의 표징이 첫째로는 생전에 부모공양을 잘하는것이요 다음으로는 사후에 제사를 잘 받드는것이라고 말한다. 그런즉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가 죽을병이 나면 극진한 구원과 함께 필요하면 넉적다리살이라도 배어 대접해야 하였다.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입에 흘려넣는 《단지》도 있었다. 이도 조런치 않은 일이었지만 사후 제사법만은 정말 번페스러웠다. 그중에서도 분묘결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올라가 3년을 살아야 하는 려모살이는 더구나 못 할도룩이었다.

아무리 추위도 불을 쬐일수 없고 먹고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수 없었다. 고기는 말할것도 없고 밥도 못 먹고 꼭 맹물에 미음을 마셔야 했다. 찬은 산나물이나 채소 반찬밖에 못 놓아먹었다.

《네? 그랬다가 원네가 벌을...》

반똥아치는 펄쩍 뛰었다. 《아아, 일없다니깐. 내려가서 아저께 그렇게 이르라고. 그런데 이 사실이 절대로 루설되면 안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는 의외로 불복했다. 가지 말라고 다들 불들어서 그는 며칠을 더 묵으며 룡송한 대접을 받다가 매장된 세번 지내내 삼주까지 참례하고야 떠나갔다.

봉사는 벌써 1년나머리모살이를 하고있었다. 한량건달로 떠돌아다니던 그

말 물렸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팻 집어치우고 내려가고싶었지만 아버지의 유언도 접을 받다가 매장된 세번 지내내 삼주까지 참례하고야 떠나갔다.

봉사는 벌써 1년나머리모살이를 하고있었다. 한량건달로 떠돌아다니던 그

말 물렸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팻 집어치우고 내려가고싶었지만 아버지의 유언도 접을 받다가 매장된 세번 지내내 삼주까지 참례하고야 떠나갔다.

봉사는 벌써 1년나머리모살이를 하고있었다. 한량건달로 떠돌아다니던 그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인동도여러분의 서면력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